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 유출입을 중심으로

김규환*· 이덕**· 오근상***

Ⅰ. 서론

Ⅱ. 기업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화성시 산업현황 및 구조
1. 화성시 일반 및 산업현황
2. 화성시 산업구조

Ⅳ.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2. 자료분석 방법

Ⅴ. 화성시 기업 유출입 분석
1. 기업 유출입 분석
2. 업종 유출입 분석

Ⅵ. 경영환경 요인에 관한 설문결과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Ⅶ. 연구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요약
2. 정책적 시사점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 교신저자(E-mail: therute@korea.ac.kr, Tel: 02-3290-5330)
** 화성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팀장, 공동저자
*** (前)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책임, 공동저자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345

투고(접수)일 2023.3.14. 심사(수정)일 2023.3.31. 게재확정일 2023.12.14.

Ⅰ. 서론

기업의 지역이동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적 행동으로서, 사업규모 확장,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사업성과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Knoben 2008), 이동으로 인한 비용(cost)보다 편익(benefit)이 더 클 때 발생한다(강동우 2019). 즉, 기업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이동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지역을 이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기술 및 인적자본의 활용, 비용절감 등의 이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Pellenbarg et al. 2002).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지역이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송창현 외 2022). 둘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김대영 2010),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이러한 기업의 지역이동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셋째, 기업의 지역이동은 지역 및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이유진·한영숙 2020; 송창현 외 2022; 최준영·오규식 2012). 이는 첨단기술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지역을 이동하는 원인과 전통제조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지역을 이동하는 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정책 맥락에 따라서도 기업이동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지역이동은 지역의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승수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송창현 외 2022).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업이 유입

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단지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반대로 기업의 유출은 생산성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창현 외 2022). 기업의 유출이 때로는 새로운 산업의 유입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역산업구조가 재정비될 수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지역이동을 연구하는 것은 지역산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산업특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의 드라이브 역할을 하는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산업의 기업들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도시계획 및 지역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기업이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게다가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태적 관점에서 기업 분포를 살펴보고 있으며, 동태적 관점에서 기업이동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한다면, 송창현 외(2022)의 연구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시군구 지역 간 기업이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는 그 내부 지역별로 산업구조의 특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 세부지역별로 기업 유출입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기존 전통제조업에서부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입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화성시는 2015년 맥킨지가 '2025년 세계 7대 부자도시' 중

하나(화성시 4위)로 선정할 만큼 지역내총생산(GRDP)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제조업이 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의 생산 및 연구시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다. 둘째, 화성시는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세부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차별화된 도시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화성시에는 21개의 산업단지와 4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서부 및 남부지역에는 주로 부품·장비 중심의 전통제조업체들이, 동부지역에는 ICT 제조·서비스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화성시를 권역별로 구분해 어떤 산업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화성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례시를 목표로 지역경제 성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는 기업유치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및 산업정책은 화성시에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기업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화성시의 일반 및 산업현황을 비롯하여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화성시를 크게 세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서의 기업 및 업종 유출입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기업 유출입과 경영환경 요인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에 따른 경영활동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활동 요인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기업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기업이동은 내부적 요인(internal factors),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s), 입지지역 차별성(location factors)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이유진·한영숙 2020; 송창현 외 2022; 최준영·오규식 2012).

내부적 요인에는 산업(업종)유형, 기업규모 및 업력 등이 포함된다. 먼저, 산업유형은 기업이동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 및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안영수·이승일 2014). 다음으로 기업규모와 업력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이동하려는 성향이 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동하려는 성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Brouwer 2004; Brouwer et al. 2004; Stam 2007; Van Dijk and Pellenbarg 2000; Weterings and Knoben 2013). Weterings and Knoben(2013)에 따르면 기업규모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에서는 장거리 이동보다 단거리 이동이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 업력에 따른 이동은 기업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는데, 성숙기나 안정기 이전의 기업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여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거나 조직규모를 확장하며, 연구개발주체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과 같은 외부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숙기 및 안정기에 진입한 기업보다 더 빈번하게 이동할 수 있다(송창현 외 2022).

외부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산업구조, 정부지원정책 등이 있다. 먼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로 인한 이동은 주로 산업집적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외부효과로 설명되는데, 이는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가 기업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oll(2004)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집적 비율, 서비스업 비율 등 지역 수준의 산업집적이 기업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terings and Knoben(2013)도 지역의 산업집적, R&D 집약도 등의 요소가 장거리 기업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Duranton and Puga(2001), Arauzo-Carod and Manjón-Antolín(2012), Hong(2014) 등은 집적의 외부효과에 따른 기업이동의 경우 신생기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정책이 기업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제도주의에서는 기업이동을 능동적 행동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동적 행동으로 설명하는데(이유진·한영숙 2020),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을 중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Brouwer et al. 2004; 전경구 2015).

입지지역 차별성에는 교육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임대료 등이 있을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박동규 외(2015)는 교육수준, 도로연장, 임대료 등이 제조업체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으며, 최준영·오규식(2012)은 교통, 기반시설, 교육수준이 ICT 기업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홍일영(2008)의 연구에서는 지식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와 교육수준이 소프트웨어업체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통, 기반시설, 교육, 임대료, 지식교환 네트워크 등의 지역적 특징이 기업의 지역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화성시 산업현황 및 구조

1. 화성시 일반 및 산업현황

2020년 말 기준 화성시는 총인구가 88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다([표 1] 참조). 그리고 경기도 내 총인구 상위 지역 중에서

총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7.7%이다.

[표 1] 경기도 총인구 상위 지역

(단위: 천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원시	1,207.0	1,217.0	1,218.8	1,215.0	1,210.2	0.3%
용인시	982.6	996.3	1,026.1	1,052.5	1,067.0	2.1%
고양시	999.1	1,005.1	1,007.0	1,024.6	1,045.5	1.1%
성남시	951.5	944.3	931.4	919.9	922.0	-0.8%
화성시	655.4	708.6	777.3	838.6	880.9	7.7%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총인구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화성시 지역내총생산 수준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2016년 52.9조 원에서 2020년 81.9조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2019년 그 수준이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화성시 지역내총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경기도 지역내총생산 상위 지역

(단위: 조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화성시	52.9	68.1	77.7	74.5	81.9	11.5%
성남시	39.6	41.0	42.3	44.1	46.8	4.3%
용인시	30.8	33.4	30.5	30.2	33.3	2.0%
수원시	31.8	33.9	35.4	36.6	33.0	1.0%
평택시	26.5	30.9	33.8	32.0	31.6	4.5%

자료(설명): 당해년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경기도 내 지역내총생산(GRDP)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더불어 상위권에 속한다

([표 3] 참조). 2016~2020년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꾸준히 6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교 범위를 전국 시군구 지역으로 넓히더라도 화성시는 대체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3] 경기도 재정자립도 상위 지역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화성시	61.5	64.3	60.1	68.9	66.3
성남시	56.8	58.7	59.2	58.1	60.5
용인시	54.8	58.1	55.5	53.0	50.2
수원시	51.4	51.9	49.3	48.1	45.9
하남시	45.5	45.6	44.1	43.5	45.7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20년 기준으로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사업체수(10.5만 개)가 많은 지역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체수가 연평균 17.7% 증가하였다([표 4] 참조). 또한, 종사자수 측면에서 화성시는 2018년에 수원시를, 2019년에 성남시를 앞서기 시작하여, 2020년 기준 경기도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다([표 5] 참조).

[표 4] 경기도 사업체수 상위 지역

(단위: 천 개,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원시	70.0	71.9	73.4	74.0	109.3	11.8%
고양시	63.6	66.6	69.3	69.7	107.5	14.0%
화성시	54.7	58.2	62.5	66.8	105.0	17.7%
성남시	64.0	64.2	65.5	66.3	97.5	11.1%
용인시	48.1	49.6	52.7	55.8	95.7	18.7%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수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표 5] 경기도 종사자수 상위 지역

(단위: 천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화성시	405.5	430.0	460.4	492.0	549.7	7.9%
성남시	434.1	448.8	462.1	467.6	515.6	4.4%
수원시	411.8	423.6	449.5	438.6	478.0	3.8%
용인시	308.1	314.1	337.5	351.0	408.9	7.3%
고양시	305.9	319.4	332.9	334.8	371.5	5.0%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종사자수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과거 화성시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군락 형태의 집적지가 다수 형성되었다. 기업들은 낮은 지가, 넓은 부지 등을 위해 화성시로 이동하였는데, Schmiedeberg(2010)의 혁신클러스터 형성과정처럼, 화성시의 기업집적지들은 '공동공간(co-location)'과 '군집하기(clustering)'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특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업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화성시 동부의 동탄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반월동)와 함께 ICT 제조업체들이 입지하고 있고, 서부에는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남양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차 전용시험장 K-City(송산면) 등 자동차 연구개발 및 시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부에는 기아 화성공장(우정읍)과 제약단지(향남읍)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및 의약품·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입지하고 있다(화성산업진흥원 2022). 산업단지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화성시에는 21개(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18개, 도시첨단산단 1개)가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현재 조성 중이다.[1] 지식산업센터는 44개(이 중 8개는

1) 남양읍, 양감면, 정남면, 반월동, 화산동, 동탄5동(도시첨단산단), 동탄6동에는 각각 1개 산단이, 우정읍(국가산단 1개 포함), 향남읍, 마도면, 송산면(국가산단 1개 포함),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에는 각각 2개 산단이 있다.

건설 중)가 있는데(경기테이터드림 홈페이지), 이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두 동탄에 있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다수 제조업체의 영세성,[2]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상대적 부족, 동부 이외의 지역에서의 정주 노동인력 부족과 열악한 교통여건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화성산업진흥원 2022).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화성시는 6개 도심을 발전 축으로 두고 있다. 6개 도심은 동탄, 병점, 남양, 송산, 봉담, 향남이며(화성시 2019a), 동탄·병점은 동부권역, 남양·송산은 서부권역, 봉담·향남은 각각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분류된다. 이후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서는 [표 6]과 같이 화성시를 세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부권역의 발전 방향은 우수한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문화·교육수요 대응 및 고급일자리 창출', 서부권역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3]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남부권역은 지속 가능한 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다(화성시 2019b).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에 두고, 기존 전통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목적으로, 화성시는 장기적인 지역산업전략으로서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클러스터(테크노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을 기반으로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그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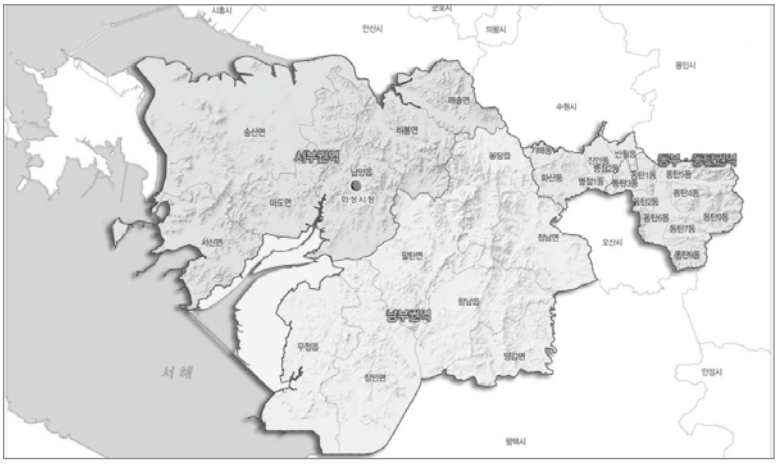
2)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제조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수(18,109개사)의 비중이 65.6%이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 비중은 다른 경기도 내의 시군구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체수 자체는 가장 많다.

3)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시화호 남측간석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사업면적: 55.64㎢, 사업기간: 2007~2030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송산그린시티에는 주거, 관광·레저, 상업, 산업, 국제테마파크 등이 입지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지구 중에서 남측지구(송산면 삼존리 일원, 6.59㎢)에는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판교에서 형성되어 있는 'R&D 남방한계선'(매일경제 2022/4/8)을 남쪽으로 더 내리기 위해,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동탄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표 6] 화성시 권역 구분

구 분	권역별 행정구역
동부권역	동탄1-8동, 기배동, 반월동, 병점1-2동, 진안동, 화산동
서부권역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새솔동
남부권역	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향남읍 정남면, 팔탄면



자료(출처): 화성시(2019b)

2. 화성시 산업구조

[표 7]은 화성시에서 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 특화도(LQ: Location Quotient)가 높은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시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물류,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특화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의 사업체수 LQ와 종사자수 LQ가 모두

2.0 이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경기도 내 지역내총생산 상위 8개 지역(2020년 기준)을 대상으로 특화도가 높은 업종들을 비교해 보면([표 8] 참조), 화성시의 산업구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종의 특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7] 화성시 업종별 특화도(LQ)

구 분	사업체수 LQ		종사자수 LQ	
	경기도 대비	전국 대비	경기도 대비	전국 대비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3	1.92	1.28	1.70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7	3.68	1.49	2.79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7	3.71	2.01	2.38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8	3.59	3.09	4.94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6	5.05	2.31	3.69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1	1.60	1.26	1.45
C24. 1차 금속 제조업	2.87	3.73	2.04	1.6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9	4.16	2.44	3.3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5	3.87	2.33	5.0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8	2.78	1.48	2.70
C28. 전기장비 제조업	1.60	2.64	1.57	2.1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7	4.66	2.58	4.0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4	3.83	3.92	3.64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85	1.60	3.04	3.50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09	2.41	1.33	1.60

자료(설명):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것이며, 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의 사업체수 LQ와 종사자수 LQ가 모두 1.2 이상인 업종만을 나타내었음.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표 8] 경기도 주요 지역의 특화 업종

구 분	화성	성남	용인	수원	평택	이천	안산	고양
A01. 농업						◎		
C11. 음료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C24. 1차 금속 제조업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J58. 출판업		◎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정보서비스업		◎						
K65. 보험 및 연금업				○				
L68. 부동산업			○					
M70. 연구개발업		○	○	◎				
M71. 전문 서비스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구 분	화성	성남	용인	수원	평택	이천	안산	고양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P85. 교육 서비스업			○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료(설명):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것이며, '○'은 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의 사업체수 LQ와 종사자수 LQ가 모두 1.2 이상인 업종을, '◎'은 이 네 가지 LQ가 모두 2.0 이상인 업종을 나타내었음.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Ⅳ.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데이터를 유료로 구득하여 기업 유출입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입지한 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정보 데이터와 기업개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전자는 데이터수집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구분코드, 사업장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업형태, 기업규모, 본사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이동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소와 정보가 부재하거나 잘못 입력된 기업은 자료에서 삭제하였고,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하나의 기업(또는 사업장)이 여러 번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동한 기업의 수가 아닌 이동 건수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2011~2020년의 기간동안 3번 움직였다면 3번의 이동이 발생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단, 기존의 기업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설립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화성시의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기본계획,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등에서의 산업발전 방향성과 관련성이 있는 업종(제조, 정보통신, 지식, 물류, 연구개발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와 거리가 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기업의 지역이동은 해당 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유입이나 기업유출로 분류될 수 있다.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기업 유출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화성시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4]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 구분을 준용하여 화성시를 동부·서부·남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화성시 외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5] 등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단, 화성시로 유입되거나 화성시에서 유출된 기업의 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권역(동부, 서부, 남부)과 타권역(화성시 외부) 간의 기업 유출입, 그리고 화성시 내부(화성시 권역 간)에서의 유출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유출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4) 2020년 기준 화성시 면적은 698.18㎢로 서울(605.23㎢) 대비 15.4% 더 넓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5) 경제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제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업데이터 분석 외에도, 기업 유출입과 경영환경 요인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화성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화성시 기업의 이동유형(이동 없음,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 및 입지권역(동부, 서부, 남부)에 따라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환경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6장에 기술하였다.

V. 화성시 기업 유출입 분석

1. 기업 유출입 분석

1) 화성시와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 분석

[표 9]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화성시 외부) 간의 기업 유출입 현황이다. 화성시의 기업유입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경기 73.8%, 서울 10.7%, 인천 6.6%)에서의 유입이며, 다음으로 충청에서 4.8%가 유입되었다. 기업유출의 경우 경기 70.4%, 충청 11.2%, 서울 6.2%, 인천 4.5% 순이다. 화성시와 기업 유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경기이다.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의 기업 유출입에서는 화성시로의 유입이 많이 발생하지만, 충청, 대경, 호남, 강원 등과의 유출입에서는 유입과 유출이 비슷한 수준이다. 즉, 화성시로의 기업 순유입(=유입−유출)은 주로 수도권, 특히 경기에서의 기업유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

(단위: 건수, %)

구 분	권 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N	%	N	%	N	%	N	%
유 입	서울	200	14.8	80	7.0	196	10.2	476	10.7
	경기	1,008	74.4	867	75.5	1,394	72.3	3,269	73.8
	인천	34	2.5	138	12.0	119	6.2	291	6.6
	강원	5	0.4	6	0.5	14	0.7	25	0.6
	충청	59	4.4	31	2.7	122	6.3	212	4.8
	호남	19	1.4	4	0.3	22	1.1	45	1.0
	대경	12	0.9	14	1.2	31	1.6	57	1.3
	동남	14	1.0	9	0.8	30	1.6	53	1.2
	제주	3	0.2	-	-	1	0.1	4	0.1
	총계	1,354	100.0	1,149	100.0	1,929	100.0	4,432	100.0
유 출	서울	43	7.1	18	5.5	50	5.8	111	6.2
	경기	472	78.0	213	65.1	580	67.1	1,265	70.4
	인천	11	1.8	33	10.1	37	4.3	81	4.5
	강원	7	1.2	3	0.9	10	1.2	20	1.1
	충청	45	7.4	39	11.9	118	13.7	202	11.2
	호남	7	1.2	6	1.8	25	2.9	38	2.1
	대경	15	2.5	10	3.1	27	3.1	52	2.9
	동남	5	0.8	3	0.9	15	1.7	23	1.3
	제주	-	-	2	0.6	2	0.2	4	0.2
	총계	605	100.0	327	100.0	864	100.0	1,796	100.0

자료(설명): '경기'는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지역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화성시 권역별로 보면, 동부와 남부권역에 비해 서부권역은 기업 유출입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업유입 측면을 살펴보면, 동부 및 남부권역으로의 유입은 경기(동부 74.4%, 남부 72.3%), 서울(동부 14.8%, 남부 10.2%), 충청(동부 4.4%, 남부 6.3%) 순인 반면, 서부권역으로의 유입은 경기(75.5%), 인천(12.0%), 서울(7.0%) 순이다. 서부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기업 유출입 수준이 낮은 것은, 1~2인의 고령가구의 비중

이 높고 정주여건이 양호하지 못하여 구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화성산업진흥원 2022, 243). 또한, 서부권역은 다른 권역과 달리 충청보다 인천에서의 유입이 더 많은데, 이는 인천과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기업유출 측면의 경우, 동부 및 남부권역은 경기(동부 78.0%, 남부 67.1%), 서울(동부 7.1%, 남부 5.8%), 충청(동부 7.4%, 남부 13.7%) 순이며, 서부권역은 경기(65.1%), 충청(11.9%), 인천(10.1%) 순이다. 서부권역에서의 유출입을 종합해 볼 때, 경기와의 유출입을 제외한다면, 인천→화성시 서부권역→충청·인천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표 10]을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의 기업유입 건수는 4,432건, 기업유출 건수는 1,796건으로, 이들 간 비율은 대략 70 대 30이며 권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부권역은 이보다 유입 비율이 더 높고 유출 비율이 더 낮다. 순유입의 경우 남부권역이 1,065건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남부권역에 속해 있는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봉담읍 등이 화성시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화성산업진흥원 2022, 42), 높은 수준의 순유입은 이러한 기업집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화성시 권역별 기업 유출입

(단위: 건수)

구 분	유입(A)	유출(B)	순유입(A-B)	A:B
동부권역	1,354	605	749	69.1:30.9
서부권역	1,149	327	822	77.8:22.2
남부권역	1,929	864	1,065	69.1:30.9
전 체	4,432	1,796	2,636	71.2:28.8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1]은 시기별 화성시 기업 유출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유입 및 유출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성시 전체의 순유입은 2015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그 이후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서부 및 남부권역의 2020년 순유입은 2015~2017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이지만, 동부권역의 경우는 2015~2017년 수준보다 약 2배 정도 큰 규모이다. 즉, 동부권역은 2010년대 후반기에 기업 순유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화성시 권역별 기업 유출입 추이

(단위: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체
전체	유입	83	215	266	305	418	517	569	590	672	797	4,432
	유출	15	42	43	54	82	226	259	295	404	376	1,796
	순유입	68	173	223	251	336	291	310	295	268	421	2,636
동부	유입	19	43	66	81	111	105	136	214	261	318	1,354
	유출	5	14	11	10	27	60	73	93	158	154	605
	순유입	14	29	55	71	84	45	63	121	103	164	749
서부	유입	21	54	60	79	116	150	175	160	161	173	1,149
	유출	1	8	11	11	10	43	55	48	79	61	327
	순유입	20	46	49	68	106	107	120	112	82	112	822
남부	유입	43	118	140	145	191	262	258	216	250	306	1,929
	유출	9	20	21	33	45	123	131	154	167	161	864
	순유입	34	98	119	112	146	139	127	62	83	145	1,065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2]는 시기별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의 변화를 보여준다. 경기에서의 유입은 서부 및 남부권역에서 2015~2017년 증가하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동부권역에서는 2018년부터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남부권역에서 서울에서의 유입이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동부권역에서 가장 많다. 또한, 모든 화성시 권역에서 2016년 이후 유

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로의 유출이 두드러진다.

[표 12]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 추이

(단위: 건수)

구분	연도	유입									유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동부	2011	2	15	-	-	1	-	-	1	-	-	4	-	-	1	-	-	-	-
	2012	10	30	1	-	-	1	-	1	-	-	12	-	-	-	1	1	-	-
	2013	12	47	2	-	2	1	1	-	1	-	9	-	1	-	-	1	-	-
	2014	6	70	3	-	2	-	-	-	-	1	8	-	-	-	-	-	1	-
	2015	4	85	6	1	10	2	2	1	-	1	20	-	2	3	-	1	-	-
	2016	11	82	1	-	6	2	-	2	1	2	48	-	1	8	-	-	1	-
	2017	23	103	3	-	3	3	-	1	-	3	56	2	1	8	2	1	-	-
	2018	27	174	1	-	10	-	1	1	-	9	78	1	-	2	1	2	-	-
	2019	43	187	7	2	12	4	2	3	1	13	120	7	1	11	2	3	1	-
	2020	62	215	10	2	13	6	6	4	-	14	117	1	1	12	1	6	2	-
서부	2011	2	16	2	-	1	-	-	-	-	-	1	-	-	-	-	-	-	-
	2012	7	34	9	-	4	-	-	-	-	-	6	-	1	-	-	1	-	-
	2013	3	52	1	-	-	-	4	-	-	2	8	-	-	-	1	-	-	-
	2014	4	57	12	2	1	1	1	1	-	-	10	-	-	1	-	-	-	-
	2015	6	86	17	1	-	1	4	1	-	1	9	-	-	-	-	-	-	-
	2016	11	109	19	2	7	1	-	1	-	-	30	6	1	3	1	-	1	1
	2017	8	138	21	-	4	-	2	2	-	2	33	6	-	9	1	4	-	-
	2018	8	123	21	-	4	-	1	3	-	5	31	5	-	3	2	1	1	-
	2019	12	117	26	1	4	-	-	1	-	7	50	11	1	7	1	1	-	1
	2020	19	135	10	-	6	1	2	-	-	1	35	5	-	16	-	3	1	-
남부	2011	7	31	-	-	3	-	1	1	-	-	5	-	-	2	1	-	-	1
	2012	14	90	4	-	4	3	1	2	-	4	11	-	-	2	1	2	-	-
	2013	15	97	12	-	7	2	7	-	-	3	13	1	-	2	1	1	-	-
	2014	16	99	14	2	6	1	2	5	-	1	23	2	2	4	1	-	-	-
	2015	21	138	16	1	11	-	-	4	-	4	27	1	-	7	2	2	2	-
	2016	27	182	22	1	20	2	4	4	-	7	82	7	2	14	5	5	1	-
	2017	25	187	17	4	14	3	2	6	-	4	90	5	-	22	5	3	2	-
	2018	18	160	10	2	17	1	4	3	1	9	112	5	3	15	2	6	1	1
	2019	20	187	15	1	17	4	4	2	-	11	110	9	1	24	2	5	5	-
	2020	33	223	9	3	23	6	6	3	-	7	107	7	2	26	5	3	4	-

자료(설명): '경기'는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지역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2010년대 후반에 늘어난 유출 기업이 경기 내의 어떤 시군구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는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부권역에서는 수원·용인, 서부권역에서는 시흥·안산, 남부권역에서는 평택·수원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중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비수도권 제조공장, 수도권 연구·개발'의 공간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는데(경향신문 2021/10/6), 이러한 맥락에서 규모가 큰 제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다수의 소규모 업체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 분석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화성시 내부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화성시 내부에서 발생한 3,238건의 기업이동 중에서, 기업이 원래 입지하고 있었던 권역 안에서 이동한 경우는 62.2%(2,106건=611건+286건+1,209건)이다. 다른 권역보다 남부권역 내에서 발생한 기업이동이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

(단위: 건수)

유 입 / 유 출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동부권역	611	27	339	977
서부권역	28	286	291	605
남부권역	206	241	1,209	1,656
전 체	845	554	1,839	3,238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동일 권역 내에서의 이동을 제외할 경우, 동부 및 서부권역에서는 남부권역으로의 기업이동이 많은 편이다.[6] 그리고 남부권역에서 동부 및 서

6) 동부권역에서 서부 및 남부권역으로의 이동 건수 간 비율은 7 대 93이며, 서부권역에서 동부 및 남부권역으로의 이동 건수 간 비율은 9 대 91이다.

부권역으로의 이동 규모(447건=206건+241건)는 남부권역 내의 이동 규모(1,209건)의 37.0%이다. 즉, 화성시 내부에서는 남부권역으로의 기업이동(남부권역 내의 이동을 포함)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간의 이동 규모는 작다.

[표 14]는 시기별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 권역 내에서의 기업이동은 세 권역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화성시 내부에서의 기업이동은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권역으로의 기업이동을 보면 동부권역은 점점 기업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부권역은 순유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남부권역은 일정 수준의 순유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14]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 추이

(단위: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체
동 부	내부	4	38	40	41	77	47	69	88	103	104	611
	유입	1	6	13	25	21	26	24	34	39	45	234
	유출	6	29	13	22	25	43	48	46	65	69	366
	순유입	-5	-23	-	3	-4	-17	-24	-12	-26	-24	-132
서 부	내부	4	16	22	22	20	34	36	28	51	53	286
	유입	6	9	7	15	21	37	46	38	44	45	268
	유출	4	17	18	27	35	39	41	44	49	45	319
	순유입	2	-8	-11	-12	-14	-2	5	-6	-5	-	-51
남 부	내부	22	70	59	85	111	152	178	170	148	214	1,209
	유입	9	45	27	46	56	76	78	82	104	107	630
	유출	6	14	16	37	38	57	59	64	73	83	447
	순유입	3	31	11	9	18	19	19	18	31	24	183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2. 업종 유출입 분석

1)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업종 유출입 분석

[표 15]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화성시 외부) 간 유출입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타권역에서 화성시 동부권역으로 유입 건수가 많은 업종은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J58(출판업)[7]이며, 서부 및 남부권역에서는 C29,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유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C29의 유입이 높지만, 동부권역은 C26 및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같은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도 많다. 반면, 동부권역에서 유출이 높은 업종은 C29, C26, C28(전기장비 제조업)이며, 서부권역은 C29, C25, C22, 남부권역은 C29, C25, C28이다. 요컨대, 서부 및 남부권역은 부품·장비 제조업종이 주로 유입되는 반면, 동부권역은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업종 유출입 현황은 화성시 권역별 산업현황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업종 유출입

(단위: 건수)

유 입								유 출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C29	232	C29	309	C29	414	C29	955	C29	138	C29	76	C29	191	C29	405
C26	146	C25	185	C25	223	C25	432	C26	68	C25	35	C25	89	C25	154
J58	103	C22	68	C22	171	C26	336	C28	36	C22	31	C28	66	C26	139
M72	94	C20	67	C26	147	C28	271	C27	35	C28	20	C20	63	C28	122
C28	87	C28	61	C28	123	C22	266	C25	30	C30	18	C26	59	C20	95

7) 화성시에서 J58(출판업) 유출입의 대부분(85% 이상)은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유 입								유 출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C27	82	C30	61	C20	107	C20	213	J58	30	C27	15	C22	48	C22	88
M71	57	C24	52	C24	72	C27	175	M72	26	C20	14	C30	40	C27	77
N75	52	C26	43	C30	71	C30	143	M71	20	C26	12	C24	32	C30	67
C20	39	C17	35	C27	60	M72	142	C20	18	C10	9	C27	27	M72	46
H49	35	C27	33	C10	55	C24	131	N74	16	M72	9	C10	22	C24	45

자료(설명): 권역별로 유입 또는 유출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6]은 시기별 화성시 주요 업종의 순유입 변화를 나타낸다(유입 및 유출 변화는 [부록 표 1] 참조). 먼저, C29와 C25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순유입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8] J(정보통신업) 업종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순유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J58은 상대적으로 순유입의 증가세가 크며,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J63(정보서비스업)은 2016~2017년부터 순유입이 조금씩 늘고 있다.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역시 2010년대 후반부터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는 2018년에, M71(전문 서비스업)은 2019년에 큰 증가폭을 보였다.

[표 16] 화성시 주요 업종의 순유입 추이

(단위: 건수)

구분	C20	C22	C25	C26	C28	C29	J58	J62	J63	M70	M71	M72
2011	2	4	11	3	6	16	1	-	-	-	1	-
2012	8	12	20	18	10	25	4	-	-	2	3	-
2013	6	22	23	10	21	51	-	1	-	1	1	7
2014	13	16	23	22	11	65	3	1	-	-	1	10

8) 단, [부록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입 및 유출 자체는 대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구분	C20	C22	C25	C26	C28	C29	J58	J62	J63	M70	M71	M72
2015	13	17	41	31	22	85	3	2	2	4	2	8
2016	9	17	45	15	25	69	12	-2	-	8	2	7
2017	17	15	43	26	7	77	16	4	-1	2	-1	6
2018	18	22	26	32	8	47	13	6	5	3	2	24
2019	14	25	9	18	9	68	21	2	3	2	8	12
2020	18	28	37	22	30	47	17	3	2	3	28	22
전체	118	178	278	197	149	550	90	17	11	25	47	96

자료(설명): 업종 유출입 수준이 높은 '제조업'(C),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중에서 건수가 많은 업종(중분류 기준)을 선별하였음.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화성시 동부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지하고 있는데, 위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ICT 제조·서비스업체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동부권역에 점차 밀집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 다른 특징은, 화성시로 유입되는 J 및 M 업종은 C(제조업) 업종과 비교했을 때 경기에서보다 서울에서 오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9] 특히, 서울로부터 이러한 업종의 유입은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10]

2)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 분석

[표 17]은 화성시 권역 간 유출입(화성시 내부 이동)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의 경우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이동 건수가 가장 많다. 그 외에, 동부권역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순으로 유출입이 많고, 서부권역은 C25,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0(화학물

9)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화성시로 유입된 C 업종 가운데 서울에서 유입된 경우는 7.7%인 반면, J 및 M 업종 가운데 서울에서 유입된 경우는 각각 35.4%, 21.5%를 차지한다.

10) 서울에서 화성시로의 J 및 M 업종 유입의 경우 2011~2015년은 연간 2~3건 정도였으나, 2016~2018년은 연간 9~17건, 2019~2020년은 연간 33~44건이다.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남부권역은 C25, C22, C26 순으로 유출입이 많다. 이러한 현황은 앞서 살펴본 타권역(화성시 외부)과의 업종 유출입 현황과 유사하다.

다만, J58(출판업)의 경우 화성시 동부권역과 타권역 간 유출입 순위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으나, 화성시 권역 간 유출입에서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같은 업종의 이동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화성시 동부권역에서는 주로 화성시 외부로부터 ICT 서비스업종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으로 인한 권역별 순유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유입 및 유출 변화는 [부록 표 2] 참조). 동부권역은 C25, C29 등의 순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부권역은 2016년부터 C29의 순유입이, 남부권역은 2017년부터 C25의 순유입이 증가하였다. 화성시 내부의 업종 유출입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장비 제조업종은 동부권역에서 주로 남부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

(단위: 건수)

동부 → 동부		동부 → 서부		동부 → 남부	
KSIC	N	KSIC	N	KSIC	N
C29	190	C29	5	C29	111
C26	83	C17	2	C25	50
C27	33	C22	2	C26	27
M72	29	C25	2	C22	23
C25	24	C26	2	C27	22
C28	23	C28	2	C28	20
N75	21	H49	2	C33	10
C22	18	N74	2	C20	8
J58	18	C16	1	C24	8
M71	18	C18	1	C10	7
서부 → 동부		서부 → 서부		서부 → 남부	
KSIC	N	KSIC	N	KSIC	N
M72	6	C29	60	C29	56
C28	4	C25	56	C25	49
H49	2	C20	25	C22	32
N74	2	C22	21	C24	18
A01	1	C26	13	C20	16
A02	1	C28	13	C30	15
C10	1	C30	13	C28	12
C16	1	C17	10	C33	10
C17	1	C24	10	C26	8
C23	1	E38	9	C27	8
남부 → 동부		남부 → 서부		남부 → 남부	
KSIC	N	KSIC	N	KSIC	N
C29	64	C29	75	C29	317
C26	24	C25	31	C25	208
C28	20	C22	22	C22	143
C25	14	C28	16	C26	69
C27	11	C20	15	C28	67
M72	10	C30	14	C20	65
C33	7	C26	12	C30	58
C22	6	C24	9	C24	39
H49	6	C17	5	C27	35
N75	5	C32	5	C17	26

자료(설명): 범주별로 이동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8] 화성시 권역 간 주요 업종의 순유입 추이

(단위: 건수)

구분	연도	C20	C22	C25	C26	C28	C29	J58	J62	J63	M70	M71	M72
동부	2011	-	-1	-	1	-	-4	-	-	-	-	-	-
	2012	1	1	1	-2	-2	-11	-	-	-	-	-	-
	2013	-	-	-2	1	-1	4	-	-	-	-	1	-1
	2014	-2	-2	-2	-	1	2	-	-	-	-	-	-
	2015	-	-3	-	-2	-	-1	-	-	-	-	-	1
	2016	-2	-1	-4	-2	1	-4	-	-	-	-	-1	1
	2017	-1	-3	-6	-	-2	-6	-	-	-	-	-	1
	2018	-	-1	-7	-	-	-8	-	-	-	1	-	6
	2019	1	-5	-11	-	2	-13	1	-	-	1	1	1
	2020	-2	-4	-7	-1	3	-10	-2	-	-	-	-	2
	전체	-5	-19	-38	-5	2	-51	-1	-	-	2	1	11
서부	2011	-	-1	-1	-	-	2	-	-	-	-	-	-
	2012	-	-1	-3	-	-1	-1	-1	-	-	-	-	-
	2013	-1	-	-4	-1	2	-2	-	-	-	-	-	-
	2014	3	-2	-3	-	-	-3	-	-	-	-	-	-1
	2015	-	-1	-2	1	2	-6	-	-	-	-	-	-2
	2016	-3	-4	1	1	-3	10	-	-	-	-	-	-
	2017	1	-1	-5	2	-	8	-	-	-	-	-1	-3
	2018	2	2	-1	2	-3	8	-	-	-1	-	-	-3
	2019	-3	1	1	1	2	4	1	-	-	-2	-	-
	2020	-	-1	1	-	3	3	1	-	-	-	-	-2
	전체	-1	-8	-16	6	2	23	1	-	-1	-2	-1	-11
남부	2011	-	2	1	-1	-	2	-	-	-	-	-	-
	2012	-1	-	2	2	3	12	1	-	-	-	-	-
	2013	1	-	6	-	-1	-2	-	-	-	-	-1	1
	2014	-1	4	5	-	-1	1	-	1	-	-	-	1
	2015	-	4	2	1	-2	7	-	-	-	-	-	1
	2016	5	5	3	1	2	-6	-	-	-	-	1	-1
	2017	-	4	11	-2	2	-2	-	-	-	-	1	2
	2018	-2	-1	8	-2	3	-	-	-	1	-1	-	-3
	2019	2	4	10	-1	-4	9	-2	-	-	1	-1	-1
	2020	2	5	6	1	-6	7	1	1	-	-	-	-
	전체	6	27	54	-1	-4	28	-	2	1	-	-	-

자료(설명): 업종 유출입 수준이 높은 '제조업'(C),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중에서 건수가 많은 업종(중분류 기준)을 선별하였음.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Ⅵ. 경영환경 요인에 관한 설문결과

1. 설문개요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에 따른, 화성시 기업의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화성시 내부에서 설립되어 이동 없이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A1형),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기업'(A2형), '다른 지역에서 화성시로 이동한 기업'(B형)이며,[11]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가', '전문인력 채용', '거래처 접근성', '행정적 지원',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교통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을 선별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이들 각 요인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요인 중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부록 표 3] 참조). 설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달간 진행되었고, 70개 기업(A1형: 38개사, A2형: 14개사, B형: 18개사)이 응답하였다.

2. 설문결과

[표 19]는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1~5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 기업들은 '거래처 접근성', '행정적 지원', '자연환경' 측면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전문인력 채용', '교통환경', '지가'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A1형, A2형, B형 간에도 이러한 만족도 순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동유형과 상관없이,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중에서 '거래처 접근성', '행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

11) 설문은 '화성시에서 이동이 없었던 유형'과 '외부에서 화성시로 이동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전자로부터 '이동이 전혀 없었던 유형'과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유형'을 추가로 분류하였다.

았지만, ‘전문인력 채용’, ‘교통환경’, ‘지가’의 경우에는 낮았다.

[표 19] 이동유형별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

구 분	이동 없음	내부 이동	외부 유입	전 체
지 가	2.71	2.29	2.83	2.66
전문인력 채용	2.11	2.00	2.22	2.11
거래처 접근성	3.32	3.43	3.33	3.34
행정적 지원	3.29	3.00	3.33	3.24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3.05	3.00	3.22	3.09
교통환경	2.37	2.64	2.56	2.47
교육환경	2.76	2.29	2.67	2.64
자연환경	3.26	3.00	3.28	3.21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래처 접근성’의 경우, 이동이 없었던 기업 및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기업은 동부권역에 입지할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은 서부권역에 입지할수록 그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다른 이동유형의 기업과 달리,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은 거래처 접근성 측면에서 서부권역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전문인력 채용’의 경우, 이동유형과 상관없이 동부권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만족도가 조금이나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0]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별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

구 분	이동 없음			내부 이동			외부 유입		
	동부	서부	남부	동부	서부	남부	동부	서부	남부
지 가	2.69	3.25	2.62	2.33	2.00	2.30	2.89	3.00	2.71
전문인력 채용	2.31	1.50	2.10	2.33	1.00	2.00	2.44	1.00	2.29
거래처 접근성	3.46	2.75	3.33	3.67	3.00	3.40	3.33	3.50	3.29
행정적 지원	3.31	3.50	3.24	3.33	4.00	2.80	3.33	3.00	3.43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2.85	3.00	3.19	2.33	4.00	3.10	3.22	4.00	3.00
교통환경	2.85	1.50	2.24	3.00	1.00	2.70	2.78	1.00	2.71
교육환경	3.08	2.50	2.62	3.00	2.00	2.10	2.67	2.00	2.86
자연환경	3.85	3.75	2.81	3.00	4.00	2.90	3.33	3.50	3.14

자료(설명): ‘동부’, ‘서부’, ‘남부’는 응답 기업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화성시 권역임.

2014년 말 동탄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들의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2014년까지 유입된 기업들은 '자연환경',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순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2015년부터는 '행정적 지원', '거래처 접근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외부 유입 시기별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부터
지 가	2.38	3.20
전문인력 채용	1.75	2.60
거래처 접근성	3.00	3.60
행정적 지원	2.88	3.70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3.13	3.30
교통환경	2.13	2.90
교육환경	2.38	2.90
자연환경	3.25	3.30

[표 22]는 경영활동 지속에 가장 중요한 경영환경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결과를 응답 기업의 이동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이나 '지가'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고, '행정적 지원', '교통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거나 그 비중이 작다. 이동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동이 없었던 기업(A1형)과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기업(A2형)은 '전문인력 채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많았고,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B형)은 '지가'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교통환경을 제외한 교육 및 자연환경 등의 인프라적 요소들은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이동유형별 지속적 경영활동을 위한 주요 경영환경 요인

구 분	이동 없음		내부 이동		외부 유입		전 체	
	N	%	N	%	N	%	N	%
지 가	3	7.9	3	21.4	8	44.4	14	20.0
전문인력 채용	26	68.4	8	57.1	3	16.7	37	52.9
거래처 접근성	4	10.5	2	14.3	3	16.7	9	12.9
행정적 지원	2	5.3	-	-	-	-	2	2.9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1	2.6	1	7.1	3	16.7	5	7.1
교통환경	2	5.3	-	-	1	5.6	3	4.3
총 계	38	100.0	14	100.0	18	100.0	70	100.0

자료(설명): 응답 기업 중 '교육환경'이나 '자연환경'을 선택한 기업이 없어 이 두 가지는 제외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화성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경영활동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경영활동을 한 기업이나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하는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부권역 입지 기업이 서부 및 남부권역 입지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데, 이는 서부 및 남부권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화성시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과 달리, 외부에서 화성시로 유입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지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

Ⅶ. 연구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 및 업종 유출입을 분석하고,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에 따른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환경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화성시에서의 기업 유출입 양상과 더불어, 그러한 기업 유출입과 경영환경 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타권역(화성시 외부)에서 화성시로의 기업 순유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경기에서 많은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권역 가운데 남부권역은 지난 10년간 타권역에서의 유입이 가장 많았고, 서부권역은 기업 유출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동부권역에서 타권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이 2010년대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왜냐하면, 화성시 내부에서는 남부권역 내에서의 이동과 남부권역으로의 이동이 많고, 이에 따라 동부권역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부권역으로 순유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부권역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들이 남부권역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타권역에서 동부권역으로 기업유입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에서의 기업유입 측면에서 2018년부터 동부권역이 남부권역을 앞질렀다는 사실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 화성시에서 일어난 기업 유출입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다.

업종 유출입을 살펴보면 화성시 유출입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동부권역에서 그다음으로 유입이 많은 업종에는 '전

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고, 서부 및 남부권역의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있다. 즉, 동부권역은 ICT 제조·서비스업종이 주로 유입되고 서부 및 남부권역은 부품·장비 관련 전통제조업종의 유입되고 있어, 권역별 산업현황의 특성이 기업 유출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서부 및 남부권역에 비해 동부권역의 경우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ICT 서비스업종의 경우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서울에서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동부권역은 그 만족도가 서부 및 남부권역에 비해 조금 높은데, 이는 동탄 신도시 조성, 교통여건(SRT 동탄역 등) 개선, ICT 기업 밀집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문인력 채용과는 달리 거래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인데,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은 서부권역에 입지할수록 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서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통제조업종 유출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이 권역에서는 '전통제조업 기반의 양호한 거래처 접근성 및 기업집적의 특성을 어떻게 남부권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적 시사점

앞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적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 동부권역은 2010년대 중반부터 ICT 제조·서비스업종이 집중되는 반면, 서부 및 남부권역은 부품·장비 제조업종이 유입되고 있다. 동부권역은 기존 기업과의 연계 및 ICT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2] 한편, 남부권역은 전통제조업종의 순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이들 업종만으로 집적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제조업의 고도화 및 융복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또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공부문 연구·시험·지원기관이나 민간부문 혁신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발굴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성시에 소공인을 비롯한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의 경영활동, 기술개발, 판로개척, 협업, 정보공유 등에 필요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 화성시가 전국 시군구 지역 중 상위 지역[13]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기업들은 경영활

12) 이 외에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부권역으로 유입되는 ICT 제조·서비스업체 중 경쟁력 또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공동관,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부권역에 집중된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들을 선별하고, 다양한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해외시장에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의 기업 정보를 화성시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자매도시 및 해외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을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

13)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제조업 사업체수는 27,607개사로 전국(579,050개사) 대비 4.8%, 경기도(184,432개사) 대비 15.0%이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257,574명으로 전국(4,217,537명) 대비 6.1%, 경기도(1,373,285명) 대비 18.8%이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시 외부의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전문인력 공급의 기반인 대학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인력양성이 지역산업과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을 고려함으로써 화성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전문인력의 채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서부 및 남부권역의 교통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서부권역을 기업 리로케이션(relocation)을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부권역은 기업 유출입 규모가 남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업종 유출입 측면에서는 남부권역과 차별적이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리로케이션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부권역이 더 적절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화성시 외부에서 서부권역으로 유입된 기업들이 다른 권역으로 유입된 기업에 비해 거래처 접근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약간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동차 연구개발 및 시험 인프라가 입지하고 있고 향후 국가산단을 포함하는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부권역 업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단순히 산업분류코드상의 분류로 인해 공장부지를 얻기 힘든 기업들도 존재하는바, 이들 기업의 생산원료 및 품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평가를 바탕으로 그 입지를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들이 낮은 지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을 볼 때, 화성시(특히 서부권역)로 새로 들어오려거나 돌아오려 하는 기업에 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산업단지,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세제 혜택(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4] 이러한 혜택 외에도, 서부권역의 교통 및 정주여건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화성시 권역별로 기업 유출입(이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료가 갖는 한계와 기업설문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적·외부적 요인 및 입지지역 차별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구축하고, 생존분석과 같은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여 기업이동의 유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4) 물론, 이러한 지원 중에는 다른 공공주체(중앙정부 등)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참 고 문 헌

강동우. 2019.「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167: 47-60.

김대영. 2010.「수도권 생산자서비스업 입지패턴 변화 분석」. 인천연구 4: 31-46.

박동규·조인성·박찬일·홍성효. 2015.「제조업체 이전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지역정책연구 26(2): 71-86.

송창현·김주영·임업. 2022.「수도권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지역 간 유출입 네트워크 및 영향 요인」. 지역연구 38(1): 3-20.

안영수·이승일. 2014.「수도권 기업이동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업유형별 기업이동 특성 연구」. 국토계획 49(5): 17-28.

이유진·한영숙. 2020.「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연구원.

전경구. 2015.「대도시권 산업단지 조성이 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0(2): 33-48.

최준영·오규식. 2012.「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의 지역간 이동 패턴 및 요인 분석」. 국토계획 47(7): 5-20.

화성산업진흥원. 2022.「화성시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화성: 화성시정연구원.

화성시. 2019a.「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화성: 화성시

_____. 2019b.「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총괄보고서」. 화성: 화성시

홍일영. 2008.「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적지 변화와 기업이동의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2): 175-191.

Arauzo-Carod, Josep M., and Manjón-Antolín, Miguel. 2012. "(Optimal) spatial aggregation in the determinants of industrial loc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9(3): 645-658. DOI: https://doi.org/10.1007/s11187-011-9335-6

Brouwer, Aleid E. 2004. "The inert firm; why old firms show a stickiness to their location." In *The 44th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Regions and Fiscal Federalism"*, 1-23. The Conference held in Porto, Portugal, 25-29 August.

Brouwer, Aleid E., Mariotti, Ilaria and Van Ommeren, Jos N. 2004. "The

firm relocation decis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8: 335-347. DOI: https://doi.org/10.1007/s00168-004-0198-5

Duranton, Gilles and Puga, Diego. 2001. "Nursery cities: urban diversity, process innovation, a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454-1477. DOI: 10.1257/aer.91.5.1454

Holl, Adelheid. 2004. "Manufacturing location and impacts of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empirical evidence from Spai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4(3): 341-363. DOI: https://doi.org/10.1016/S0166-0462(03)00059-0

Hong, Sung-hyo. 2014. "Agglomeration and relocation: Manufacturing plant relocation in Korea." *Papers in Regional Science* 93(4): 803-818. DOI: https://doi.org/10.1111/pirs.12029

Knoben, Joris. 2008. "Radical changes in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tructures: The longitudinal gap." In *Firm Mobility and Organizational Networks*. edited by Joris Knoben, 29-46. Edward Elgar Publishing.

Pellenbarg, Pieter., van Wissen, Leonardus., and van Dijk, Jouke. 2002. "Firm relocation: state of the art and research prospects." University of Groningen, SOM research school.

Schmiedeberg, Claudia. 2010. "Evaluation of cluster policy: a methodological overview." *Evaluation* 16(4): 389-412. DOI: https://doi.org/10.1177/1356389010381184

Stam, Erik. 2007. "Why butterflies don't leave: Locational behavior of entrepreneurial firms." *Economic geography* 83(1): 27-50. DOI: https://doi.org/10.1111/j.1944-8287.2007.tb00332.x

Van Dijk, Jouke and Pellenbarg, Piet H. 2000. "Firm relocation decisions in The Netherlands: An ordered logit approach." *Regional science* 79: 191-219. DOI: https://doi.org/10.1007/s101100050043

Weterings, Anet., and Knoben, Joris. 2013. "Footloose: An analysis of the drivers of firm relocations over different distances." *Regional Science* 92(4): 791-809. DOI: https://doi.org/10.1111/j.1435-5957.2012.00440.x

"점점 커지는 수도권·지방 IT 격차." 매일경제. 2022.4.8.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317318(검색일: 2023년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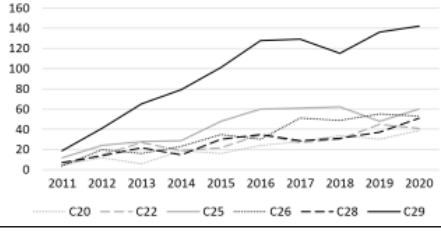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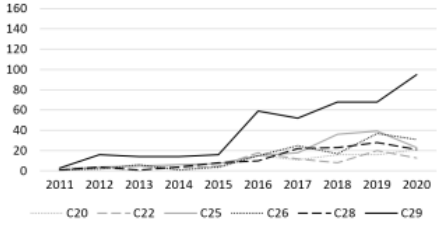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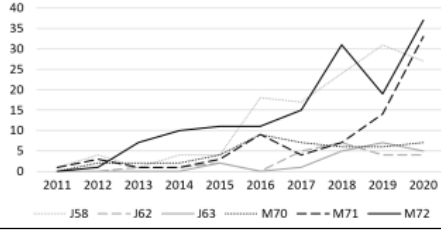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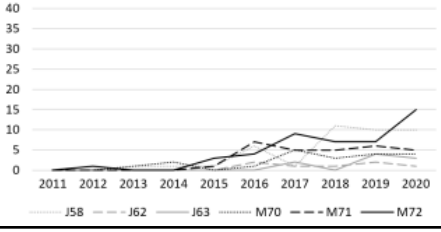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경향신문. 2021.10.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60600015(검색일: 2023년 6월 4일)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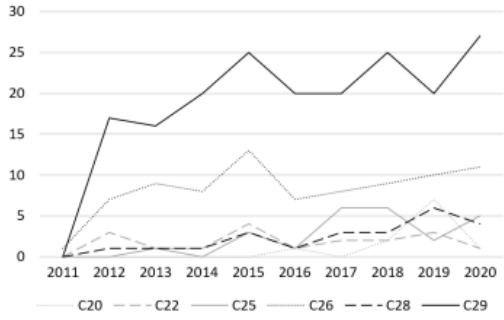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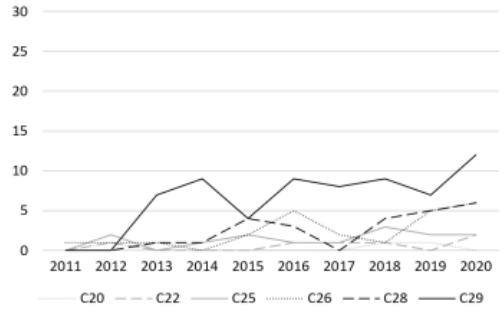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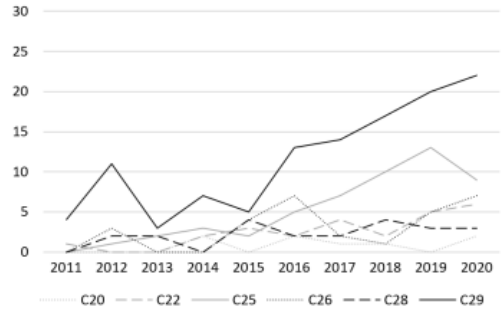
[부록 표 1] 화성시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제조업종	유입	
	유출	
정보통신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유입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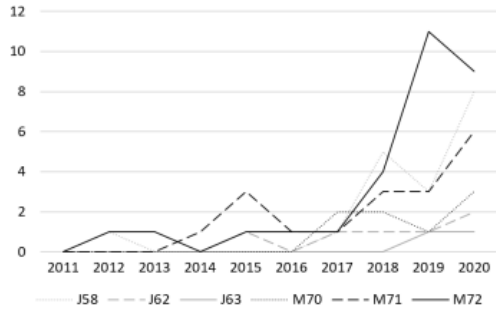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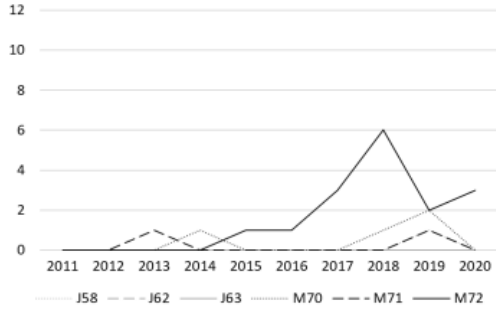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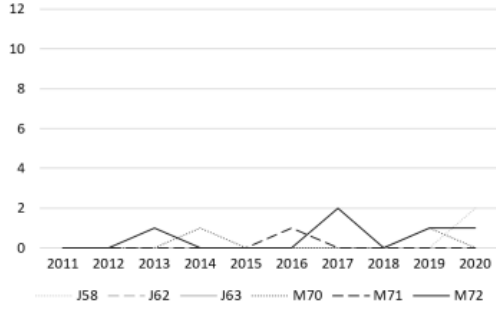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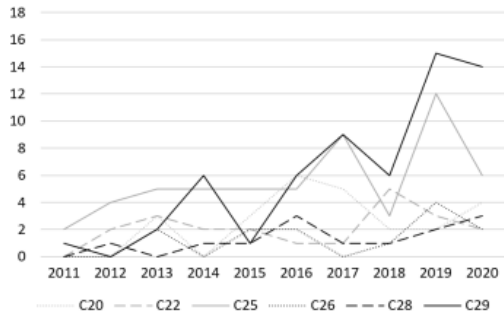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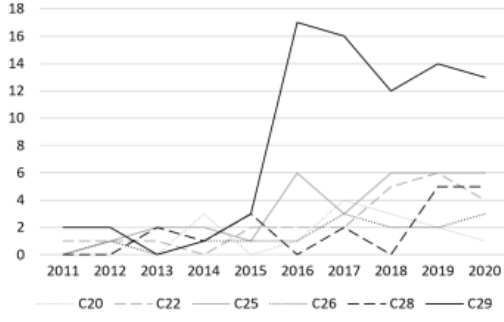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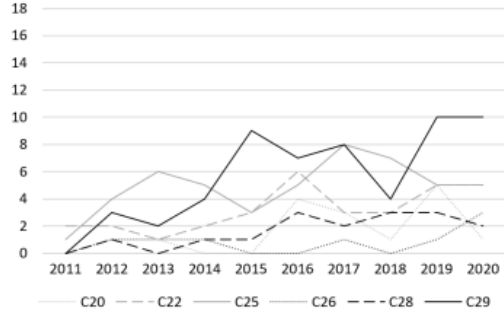
[부록 표 2] 화성시 권역 간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동부권역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권역 간)		
제조업종	내부 이동	
	서부·남부에서 유입	
	서부·남부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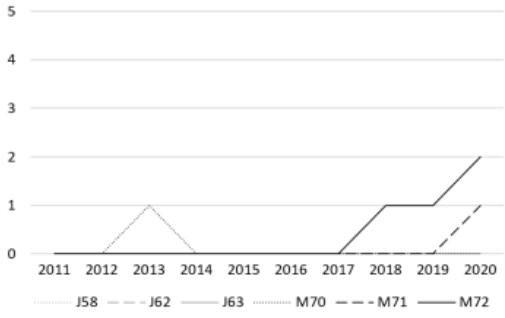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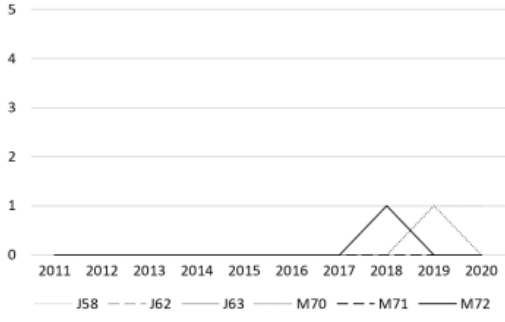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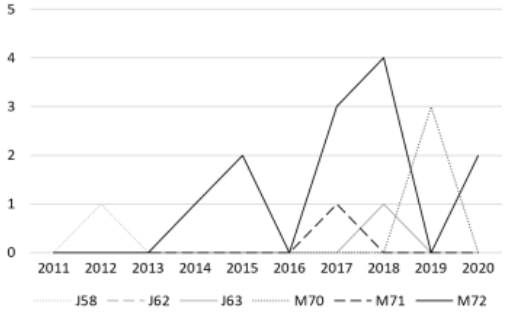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동부권역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권역 간) (계속)		
정보통신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내부 이동	
	서부·남부에서 유입	
	서부·남부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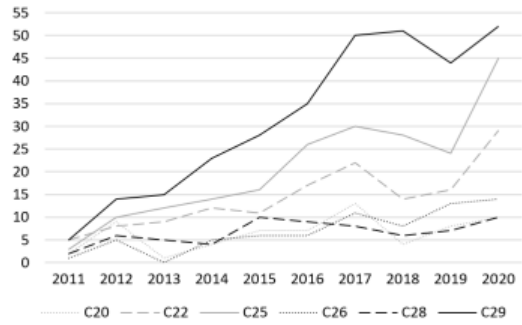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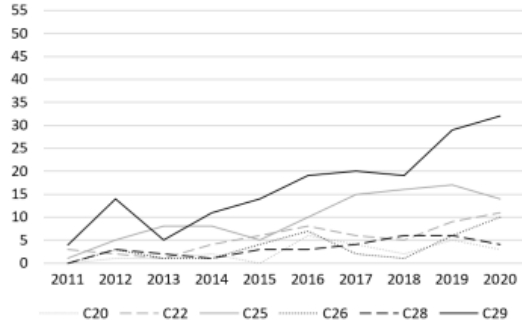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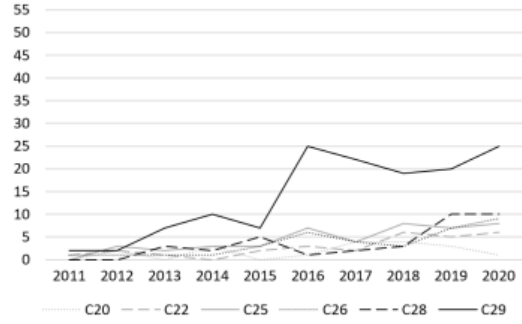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서부권역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권역 간)		
제조업종	내부 이동	
	동부·남부에서 유입	
	동부·남부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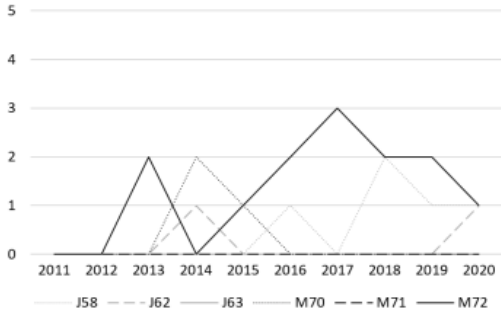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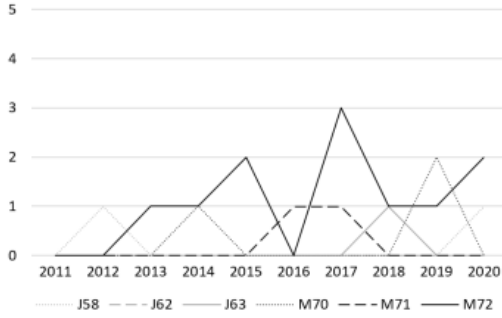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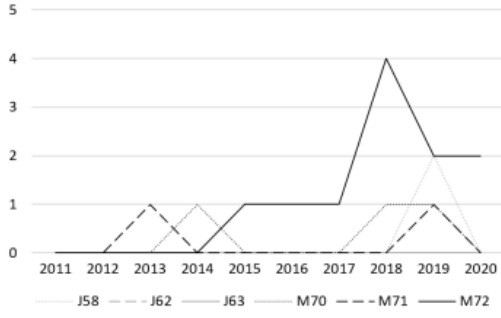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서부권역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권역 간) (계속)		
정보통신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내부 이동	
	동부·남부에서 유입	
	동부·남부로 유출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남부권역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권역 간)		
제조업종	내부 이동	
	동부·서부에서 유입	
	동부·서부로 유출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남부권역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화성시 권역 간) (계속)		
정보통신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내부 이동	
	동부·서부에서 유입	
	동부·서부로 유출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록 표 3] 화성시 기업 유출입 요인 파악 설문 문항

화성시 기업 유출입 요인 파악 설문 문항

1. 업체명: (　　)

2. 설립연도: (　　)년

3. 현재 종사자수: 약 (　　)인

4. 귀사가 속한 산업군
- 석유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건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1 -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주요 생산품목(1-2가지): (　　)

6.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대표 (　)
- 임원 (　)
- 과부장급 이상 (　)
- 일반 직원 (　)

7. [현재 소재지] 귀사의 소재지는 현재 어디입니까?
(읍면동까지 적어주세요.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　　)

8. [이전 소재지] 귀사는 현재 소재지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읍면동까지 적어주세요.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단, 이동한 적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

9. 몇년도에 이전 소재지에서 현재 소재지로 이동하였습니까?
(단, 이동한 적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년

다음쪽부터는 A, B, C항목 하나만 선택해서 응답 바랍니다.

- 2 -

[A. 화성지역에서 설립되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던 기업만 답하여 주십시오.]

10A. 화성시는 지가가 저렴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1A. 화성시는 전문인력 채용이 용이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A. 화성시는 거래처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A. 화성시는 행정적 지원이 다양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A. 화성시는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가 강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5A. 화성시는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A. 화성시는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A. 화성시는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A.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 지가
2. 전문인력
3. 거래처와의 접근성
4. 행정적 지원
5.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 및 협력
6. 교통환경
7. 교육환경
8. 자연환경

19. 기업 유치 또는 존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 바랍니다.

- 3 -

[B. 다른 지역에서 화성시로 이동한 기업만 답하여 주십시오.]

10B. 화성시가 지가가 더 저렴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1B. 화성시가 전문인력 채용이 더 용이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B. 화성시가 거래처와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B. 화성시가 행정적 지원이 더 다양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B. 화성시가 동종업종 간 네트워크가 더 강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5B. 화성시가 교통환경이 더 뛰어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B. 화성시가 교육환경이 더 뛰어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B. 화성시가 자연환경이 더 뛰어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B.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 지가
2. 전문인력
3. 거래처와의 접근성
4. 행정적 지원
5.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 및 협력
6. 교통환경
7. 교육환경
8. 자연환경

19. 기업 유치 또는 존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 바랍니다.

- 4 -

국 문 초 록

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 유출입을 중심으로

김규환(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
이덕(화성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팀장)
오근상(前 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책임)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경영환경 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2020년의 화성시 기업 유출입을 분석하였고,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동안 화성시의 기업 순유입은 증가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전통제조업종이었다. 서부권역은 유출입 규모가 작으나, 남부권역은 화성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유입도 가장 많다. 동부권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외부에서의 순유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특히 서울에서의 유입 및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한편, 화성시 기업들은 전문인력 채용 만족도가 대체로 낮았지만, 거래처 접근성 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서부권역으로 유입된 기업은 거래처 접근성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향후 기업지원정책에서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확대,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채용 촉진, 서부권역에서의 기업 리로케이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화성시, 기업이동, 기업 유출입, 지역산업, 기업지원

Abstract

A Study on regional movement of firms:
The Case of Firms' entry and Exit in Hwaseong City

Kim, Gyuhwan(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Future Growth, Korea University)
Lee, Doug(Team Manager, Strategy and Planning Team, Hwaseong Industry Promotion Agency)
Oh, Geunsang(Former Manager, Innovation and Strategy Team, Hwaseong Industry Promotion Agency)

This study examines the regional movement of firms in Hwaseong C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business environmental factors, providing implications for local industry promotion. The authors analyzed firms' entries and exits in Hwaseong from 2011 to 2020 using data from the Korea Rating & Data (KoDATA) and conducted a citywide survey. Firms' net entry into Hwaseong increased, primarily i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 The western region had relatively few entries and exits of firms, while the southern region had the largest entr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ity. The eastern region has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firms' net entries from outside the city since the mid-2010s, particularly in the Seoul and ICT sectors. Firms in Hwaseong generally expressed low satisfaction with recruit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but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business partner accessibility. Additionally, firms moving to the western region from outside the city tend to have slightly higher satisfaction with business partner accessibility. For a business support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hancing networks among economic entities, expanding support for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fostering local specialized professionals, promoting their recruitment, and encouraging firms' relocation to the western region.

Key words: Hwaseong City, Movement of Firms, Firms' entry and Exit, Local Industry, Business Support